

벽의 역할과 의미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덕기*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e-mail:hdk1213@inharc.ac.kr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according to the Role and Meaning of Wall

Deok-ki Hong*

*Dept. of Architecture, Inha Technical College

요 약

이 연구는 공간을 규명하는 벽의 역할과 의미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벽에 의한 공간의 변화된 특성을 규명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질료로서의 벽이 가지는 공간 구축의 의미뿐만 아니라 중의적인 벽의 의미와 역할을 통해 건축 공간구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르 코르뷔지에가 천명(闡明)한 ‘도미노’ 이론으로부터 근대 건축공간이 개념 및 이념적 변화를 꾀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기저로 삼고, 고전 건축과 차별화된 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공간을 배열하는 평면적 사고로부터 ‘구성’이라는 단면적 사고로 전환시켰음을 주지하는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고찰로서 벽과 공간의 상호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간이 경계에 의해 상호 간의 관계를 맺는다고 간주할 때, 건축에서 물리적이고 지각적인 경계를 형성하는 벽은 공간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 역사는 시대와 문화, 문명과 기술, 사회, 환경 등을 잣대 삼아 다각적으로 기록돼 왔지만, 그 근간(根幹)에는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자리 잡고 있었다.²⁾ 특히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건축기술의 발전과 함께 구축의 개념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벽이 구조의 기능으로부터 분리되자, 벽이 가지는 전통적인 인식도 바뀌게 되었다. 요컨대 근대 이후 건축에서는 구축(건물)보다는 공간 자체에 대한 사유가 확장되었고, 공간이 건축 디자인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한 요소로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³⁾ 즉, 파사드와 장식과 같은 외피적인 주제나 투시도로 한정됐던 공간의 형태보다 ‘벽의 사라짐’⁴⁾과 함께 자유로운 공간에 관한 욕

망이 증대되었다. ‘벽의 사라짐’으로 혁신적으로 변화된 공간에 대한 사유는 역설적으로 벽과 공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주목과 함께 공간과 공간의 상호관계에서 벽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사고로 전환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건축공간에서 벽의 역할과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에서 공간을 재현하는 공간 구성의 근원적 요소인 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공간과 공간의 상호관계, 공간에 대한 인식과 공간구성의 방법을 변화시켰음을 밝히고자 한다.

2. 건축에서 벽의 양가적 특성

“벽(Wall)”은 일정한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수직적 구조물을 일컫는 말로서 한정적으로 구축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두 영역에 모두 속한 양가(兩價)적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벽이 양의성(兩義性)을 띤 경계의 속성을 가질 때, 보다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구성의 실체이지만 비실재적인 것처럼 보이고, 중력에 저항하는 듯하며, 피막처럼 투명한 벽 등의 의미로 왜곡되면서 추상적인 구성의 다양한 방법 및 존재형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공간이 일정한 형태로 묘

2) 홍덕기, 벽의 단면적 사고를 통한 건축공간구성 교육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 2018, 인하대 박론

3) 위의 논문

4) 지오폴티, 「건축예찬」, 열화당, 1990, pp95~96

사될 수 없는 관념적인 상태임에 반해, 경계를 통해 공간을 규정하고 관계의 형상을 드러내는 벽은 건축에서 공간을 재현하는 건축 구성의 근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의 변화를 연구하기에 앞서, 예비적 고찰로서 벽의 역할에 따른 양가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벽은 사전적으로 “공간을 나누고 에워싸는데 사용되는 구조적 요소(A wall is a structure that defines an area, carries a load, or provides shelter or security)”⁵⁾라고 정의된다. 즉, 물리적 구축요소로서 벽의 역할은 공간적인 기능과 구조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2.1 공간적기능 : 한정과 분할, 융합과 차단

니콜라스 펍스너(Nikolaus Pevsner:1902~)는 그의 전서 ‘유럽건축의 개설’ 서문에서 건축이 가지는 공간적인 특질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에 의하면 건축은 내부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허한 공간을 포함함과 동시에 외부공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공간창조의 예술이다.

건축에서 벽은 특정 영역을 정의하고 한정하며, 공간을 각각 다른 내용을 갖는 두 부분(내부와 외부)으로 분리한다. 벽은 이 상이한 두 공간이 어떻게 만나는가(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를 보여주며, 두 공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균형 상태를 나타낸다.⁶⁾ 즉 벽은 건축에서 ‘침투하는 외부공간’과 ‘안전한 내부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2.2 구조적 기능(Structural Function)

역사적으로 벽은 지붕을 지지하는 구조체로서 인식되어 왔다. 즉, 벽은 상부로부터 바닥까지 전해지는 수직, 압축력을 지지하는 일차적 구조요소로 간주돼 왔던 것이다. 또한 벽은 자체적으로 수평적 힘과 벽체 표면에 전해지는 평행 전단력(shearing force)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벽이 가지는 개구부나 출입구로 인해 이러한 역학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구조역학과 공간의 함수관계에 의해 조직적과 가구식의 구조체계에서 벽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기술과 재료가 발달하고, 철골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벽은 일반적으로 간막

이 벽과 스크린 벽을 지칭하는 의미로 축소되었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미노 이론은 가구식구조를 더욱 확대시켜 벽을 구조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으며, 이에 따라 평면을 더욱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내부공간으로부터 분리된 입면은 공간의 마스크로서 건축의 조형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3. 벽의 역사적 고찰과 공간의 변화

3.1 공간(Space)으로서의 벽

: 벽의 공간성과 단면으로의 개념적 확장

그리스 건축에서 바로크 건축까지 서양의 건축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벽의 의미는 외부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는 구조체가 내외부 공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요소로서 비물질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포체(poche)가 가지는 개념적인 변화⁷⁾가 벽과 평면사이의 다이어로그를 재정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수직 벽에서 포체는 단순히 자생적인 스크린이 아니라 벽 안에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의미의 파사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포체는 평면 조직의 당연한 조건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건물의 매스에서 드러나는 3차원의 결합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⁸⁾

성 베드로 성당은 벽체를 평면, 입면, 단면이 복합된 집합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좋은 선례로, 성당의 벽은 외관상 한 덩어리의 돌을 쪼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요철의 조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외피로서 공간을 끊임없이 가리고 있다. 즉, 작은 외부표면의 부분적인 완성이 접속되어 전체성을 이루어내도록 함으로써 확장된 개념의 벽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베드로 사원의 두꺼운(Voluminous) 벽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성당 벽의 물리적 두께 때문이 아니라, 공간을 조직하는 계획의 기능 때문이다. 복잡한 프로그램은 장엄하고 드라마틱한 공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구조적 응집력을 표출한다. 또한 용적벽에는 사이 공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 두께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이 없다. 이와 같

5)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Wall>

6) 조혜진, 건축공간구성을 위한 기초교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인하대석론, 2003, p7

7) 입방체를 잘라내면 그 두께가 드러나게 된다.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육중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고전건축의 두꺼운 벽체를 파내어 만들어진 포체(poche)는 처음 벽체의 육중함을 드러내는 장식적 장치였지만 점차 점유와 거주가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는 포체가 벽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긴 잉여공간이 아니라 평면 연구를 통해 얻어진 벽의 단면적 내부공간으로 인식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8) 「Columbia Journal 2」,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p31

이 용적벽은 단순한 벽으로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파사드는 스킨보다 깊으며, 그것은 평면, 단면, 그리고 외부면면에 대한 왜곡 없이 복잡한 내부를 구별해주고 다시 융합해 주는 것이다.

고딕, 르네상스, 로코코, 바로크를 거치며 외피의 상징성과 이념의 표상으로 벽의 의미가 변용되었지만, 근대건축에서는 당대의 기술과 재료의 발달을 바탕으로 용적벽의 개념을 건축 디자인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계승하고, 또 다른 의미로 재현하면서 본질적인 변혁을 이루었다.⁹⁾ 루이스 칸은 김벨 미술관(Kimbell Museum)이나 엑스터 도서관(Exter Library)에서 공간을 포함하는 벽을 통해 봉사하는(servant) 공간이나 봉사받는(served) 공간의 개념¹⁰⁾을 정립하였다. 또한 르 코르뷔지에의 그가 제창한 ‘4개의 주택 형식’ 중 4번째인 빌라 사보아(Villa Savoye)에서 ‘스크린 벽으로 둘러쳐진 외부 공간’이 커다란 벽(하얀색 건물 매스 자체)에서 제거된 포쇄공간으로서 내부와 외부로 매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용적벽의 공간성과 개념적인 확대는 렘콜하스의 포르투 음악 전당(Casa de Musica, Porto)에서 극대화된 보이드와 솔리드의 상호작용, 헤르조그 앤 드뮈론(Herzog & de Meuron)의 Ciudad del Flamenco 프로젝트, 스티븐 홀의 캠브리지 시몬스 홀 대학기숙사(residence universitaire Simmons Hall) 계획안, MVRDV의 빌라 VPRO 등 현대건축까지 이어진다.

3.2 오브제(object)로서의 벽체 : 새로운 표현체계로의 진화

18세기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새로운 건축자재와 기술의 발달은 과거의 고정적인 건축적 양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석조와 조적조의 폐쇄적인 상자건물에서 벗어나 철재와 유리를 사용한 넓은 개구부를 갖는 개방적인 공간이 가능해졌고, 벽은 내외부 공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원래의 일차적 기능을 떠나서 새로운 표현체계로 진화하게 된다.¹¹⁾ 이러한 변화는 1920년대를 전후하여 당시의

건축과 미술, 그리고 신기술과 재료의 영향을 받아 수직표면에 대한 개념을 형성했고, 이러한 수직성의 개념은 데 스틸 운동의 추상이론과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사고를 통해 3차원적 공간구성으로 반영되고 있다.

장식의 배제를 통해 전통 건축과의 단절을 표방한 데 스틸의 신조형주의자들은 ‘순수한 면의 구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주창하였다. 이는 벤햄(Reyner Banham)이 언급했던 벽의 실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본성을 유지하는 것¹²⁾으로서, 구조에 종속되어 실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적 존재에서 객관적으로 경험을 통해 벽체를 인식되어지는 하나의 객체(object)로 인정하는 인식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데스틸에서 벽의 개념은 근대 이전의 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신기술의 보급과 함께 구조로부터 해방되고 자립적으로 존재하게 된 얇고 평활하며 자유로운 비중력의 면은 벽의 구조적 기능과 공간한정의 기능이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데 스틸에서 벽의 개념은 ‘무장식의 벽’, 콘크리트가 가지는 비물질적이고 불투명한 면이 투명한 개구부와 단일한 표면으로 지각되면서 획득되는 투명성을 내포하는 ‘비물질적인 벽’, 그리고 외관상 중량감이 제거된 듯한 ‘무중력의 벽’ 등 3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데스틸이 추구했던 형태체계에서는 일단 면이 표피를 형성하고 형성된 표피들이 재조합되어 공간을 형성한다는 상호관계성(interrelationship)을 중요시 한다. 다시 말하자면, 면의 분절을 통하여 건축의 형태를 구성하고, 이들의 접합에 의해 생성되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3.3 피막(Skin)으로서의 벽

: 볼륨을 표현하는 매스(Mass)로서의 건축

근대 건축을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경직된 상자로 포장했던 존슨과 히치콕은 근대 건축이 이전의 건축과 구별되는 다음 세 개의 미학적 기준을 세웠다. 첫째, 매스가 아닌 볼륨으로서의 건축, 둘째, 대칭을 대신하는 또 다른 규칙성의 부여, 그리고 장식을 제거한 소재 자체에 기초한 건축이다. 이중 첫 번째 기준은 근대 이전의 조적조 건축(매스)에 비하여, 건축을 내부공간이 팽창된 볼륨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팽창을 건축의 외피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미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외피로서의 벽의 구성에 대한 중요

9) 이경래, 한국 근대 건축에 있어서 즉물성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76, p118

10) 나는 포쇄를 통해, 오목하게 파내 비워진 벽과 두꺼운 벽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중략) 나는 벽체를 솔리드하게 채우지 않고 그 안에 공간을 포함하는 벽을 만들었다. (중략) 결국, 나의 봉사하는 공간과 봉사받는 공간에 대한 개념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William H. Jordy, op. cit., p.332

11) 김홍일, 새로운 시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건축과 환경, 9409, p75

12) Reyner Banham :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M.I.T Press, 1982, p141.

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내부공간의 팽창에 의한 볼륨의 입체적인 윤곽은 구조체와 외피의 분리를 도와준 기술¹³⁾의 발전에 의해 가능했으며, 이때부터 입면은 구조체에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피막(skin and skeleton)’의 개념으로 파악되기 시작했다. 육중한 벽(Massive Wall)은 중력과 관계를 통해 이해되지만, 이러한 피막 개념¹⁴⁾은 근대 건축의 초기에 쓰인 비 내력 외벽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화와 효율성의 추구, 그리고 장식의 배제를 강조한 모더니즘의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볼륨으로서의 건축은 조적조에서 볼 수 있는 매스감보다는 내부를 감싸는 평활한 표면을 통해 개방적이고, 비물질적이며, 무중력적인 입체감을 표현하고 투명한 경계를 지닌 공간으로 느끼게 한다. 떠 있는 듯이 부유하는 벽체의 더 큰 중량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건축가들은 평탄하고 균질한 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구조를 숨기기도 하였다.

근대 건축에서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추상적, 개념적 형태의 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벽의 자율적 개념은 형상의 이미지와 메시지의 전달, 그리고 표현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가 중심이 된 탈 근대주의(Post-Modernism) 건축에서 장식적 입면과 무대 장치적 입면 등의 개념으로 변모되어 재등장했다. 하지만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이나 존 헤이덕(J. Hejduk)의 작품에서는 여전히 르 코르뷔지에나 입체주의, 그리고 데스틸의 경향이 계승되고 있었다.

4. 결론

쇼펜하우어는 “건축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적 특성은 건물이 형태를 갖출 때, 중력과 그 중력에 대항하는 재료와의 항력사이에서 근본적인 충돌로부터 발생한다,”

13) 근대기술에 의하여 건물의 바닥은 지주에서 밖을 향한 캔탈레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외벽은 단순히 내부공간을 보호하는 피막으로 취급되며, 구조상의 장애 없이 연속된 유리벽으로 될 수 있게 되었다.

14) 현대에 이르러서 피막의 개념은 극단적으로 입면상의 멀리언은 사라지고 외피는 내부구조를 둘러싸는 단순한 볼륨을 투영해내는 투명하고 얇은 호르는 막의 개념까지 발전되었다. 이는 주로 고층건물 커튼월의 경량화, 단순화의 추구 및 그에 따른 재료와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관희, 현대 건축에 표현된 벽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5

고 주장했다. 건축 표현이 중력과 항력의 기본적인 투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벽 “이야 말로 볼륨을 둘러싸고 하중을 지지하여 구조적인 특성을 공간과 유기적으로 일체화시키는 본질적인 건축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전에 공간은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의 구조적 작용이나 공간에 대한 의미의 표현으로 인지되었다. 즉, 벽은 내부를 규제하는 요소이자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요소로서 건축의 외관을 결정짓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재료와 기술이 발달하고 구조체계가 변화하면서 공간은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구성의 방식도 바뀌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벽의 의미와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 벽이 가지는 공간성을 바탕으로 평면, 입면, 단면이 복합된 집합체로서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정립하는 공간구성의 근원적 요소
- 2) 구조에 종속된 허구적 존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체계로서 건축의 형태를 구성하고 공간을 생성하는 하나의 객체
- 3) 육중한 매스를 드러내는 구조벽에서 건축의 내부공간을 표현하고 형상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피막

이처럼 건축에서 공간을 재현하는 공간구성의 근원적 요소인 벽은 구조적이고 물질적이며, 평면적인 건축의 보조에서 비물질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단면적인 공간구성의 주체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벽의 역할과 의미의 변화는 공간에 대한 접근과 사고를 평면적인 공간의 ‘배열’로부터 다차원적이며 단면적인 공간의 ‘구성’으로 진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참고문헌

- [1] 지오폴티, 김원 역, 「건축예찬」, 열화당, 1990.
- [2] 홍덕기, 벽의 단면적 사고를 통한 건축공간구성 교육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 2018, 인하대 박론
- [3] 이경래, 한국 근대 건축에 있어서 즉물성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76, p118
- [4] 김홍일, 새로운 시대의 개별적 건축과 이론, 건축과 환경, 9409
- [5] 이관희, 현대 건축에 표현된 벽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5
- [6] 조혜진, 건축공간구성을 위한 기초교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인하대석론, 2003, p7
- [7] Reyner Banham :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M.I.T Press, 1982
- [8] Columbia Journal 2」,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